

농민교육 · 도시농업 연계 방안 찾는다

농진청-한국도시농업연구회, 17일 학술토론회

농민교육 운영에 지역 도시농업과 치유농업 자원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현)은 (사)한국도시농업연구회와 공동으로 17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2024년 도시농업 추계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연다고 밝혔다.

모든 부처가 협력 출생률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민교육은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 사회의 자원 연계로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국가 돌봄 사업이다. 도시농업의 경우 도시농업관리사 11,200여 명, 도시농업지원센터 55개소, 전문인력양성기관 116개소 등 지역자원을 활용하면 학교 안에서도 현장성과 전문성을 살린 질 높은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론회 1부에서는 농민교육 사업 정책과 연구 동향을 다룬다. △한국과학기술원(사) 김보경 선임연구원이 교육부 주관 농민교육 정책 사업 운영 계획 △진주교육대학교 박보경 교수가 '교육형 농장 활용 농민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표준화' △농촌진흥청 도시농업과 현승원 연구관이 '학교텃밭·치유농장 활용 농민교육 프로그램 연구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2부에서는 지자체의 농민교육 시범사업 계획과 추진 사례를 공유한다. △서울시농업기술센터 한준 지도사 △전주시농업기술센터 이영주 지도사가 지역에서 적용한 사례를 발표하고 △충남교육청 이규훈 장학사가 농촌



체험농장·프로그램 연계 농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소개한다.

3부에는 경상국립대 허근영 교수, 그린케어센터 안재준 대표,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김중기 대표, 농림축산식품부 내인지 과학기술정책과장, 농촌진흥청 김광진 도시농업과장, 최소영 농촌자원과장 등 관련 시민단체와 종사자 연구자들이 현장에서 느낀 어려움과 프로그램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이어간다.

(사)한국도시농업연구회 유용권 회장은 "이번 행사는 농민교육을 통해 도시농업의 가치와 가능성을 교육 현장에서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도시농업이 학생의 정서 안정을 돕고 환경과 생태에 대한 교육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김광진 과장은 "농촌진흥청은 2013년 전부터 학교텃밭·치유농장 활용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자원을 개발해 보급 중이다"라며 "이번 행사가 교육부와 농민교육 담당자, 도시농업 관계자의 유기적 연결로 도시농업관리사·치유농업사의 일자리 창출을 돕고 도시농업의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농협(총괄본부장 김영일)은 도내 초등학생들에게 농업·농촌의 가치 전파를 위해 지난 14일 전주양현초등학교 스쿨팜에서 전통방식 벼 수확행사를 실시하였다.

전북농협 스쿨팜 전통방식 벼 수확체험

전주양현초 스쿨팜서 진행... 농업의 가치 전파

전북농협(총괄본부장 김영일)은 도내 초등학생들에게 농업·농촌의 가치 전파를 위해 지난 14일 전주양현초등학교 스쿨팜에서 전통방식 벼 수확행사를 실시하였다.

스쿨팜은 학교와 농장의 합성어로 학교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해 밭을 조성한 후 학생들이 쉬회 수업시간에 농부가 되어 농사 관련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북특별자치도 3개시(전주·군산·익산)와 농협이 협력하여 도내 40개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다.

학생들은 지난 5개월간 학교 내 마련된 간이 텃밭에서 모내기를 시작으로 정성껏 벼를 관리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웠다.

이번 행사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벼 베기, 호룻기와 홀태를 이용한 탈곡하기, 절구와 킴을 이용해 쌀을 정미하는 등 전통방식으로 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하고, 쌀을 활용한 떡 만들기 식 체험을 통해 오감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경험을 하였다.

7일 전주 덕진초를 시작으로 21일 전주 문학초를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15일간의 이번 여정은 참여 학생들의 탐과 재미가 어우러지는 체험 교육으로 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값진 경험이 되었다.

김영일 총괄본부장은 "조그만 쌀 한 톨이 만들어 지는 과정을 통해 농업의 소중함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새만금청, 도심항공교통 분야 경쟁력 확보 모색

제4차 신산업전략 아카데미 개최... '도심항공교통 정책 동향과 새만금 적용 방안' 주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15일 도심항공교통(UAM) 정책 동향과 새만금 적용 방안을 주제로 새만금 신산업전략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에는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등 지자체, 새만금 개발공사 등 새만금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안전기술원 이승근 실장을 초청하여 진행했다.

이승근 실장은 차세대 먹거리 산업인 도심항공교통(UAM) 기술 정의, 국내외 정책 동향 등을 주제로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승근 실장은 강연에서 "대도시 인



구집중, 교통체증 등의 문제로 인해 새로운 교통수단 출현이 요구되며, 이에 도심항공교통(UAM)은 도심에서 기존 버스·택시·철도 등과 혼합된 연계 교통 형태로 제공될 것"이라며, 또한, "국내외에서는 도심항공교통

(UAM) 관련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며, 새만금의 관광 또는 항만·공항 등 거점 기반 시설과 연계를 통해 새만금만의 강점을 활용한 지역 운용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개발청 조홍남 차장은 "새만금은 10.2조 이상의 투자유치 성과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주목받고 있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에서도 새만금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육상연맹 소재철 회장 전국체전 선수단 격려 방문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는 지난 14일 경남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리고 있는 '제105회 전국체전'에 출전한 전북특별자치도 육상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경기장을 방문했다.

전북특별자치도육상연맹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소재철 회장은 "우리 전북 육상인들이 열악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동안 끝없는 노력과 인내로 힘든 훈련을 이겨내며 갈고 닦은 기량을 펼치고 있다"며 "선수단 모두가 승부를 떠나 스포츠정신을 발휘하여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부상없이 마무리 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소재철 회장은 '타 스포츠와 비교해 소외된 육상종목에 전북도민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전북육상인의 열정과 도전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연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개공, 주거환경개선사업 통해 지역사회 이웃에 희망 전달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 이웃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사가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사회환원경영의 일환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및 익산시 자원봉사센터, 익산 아우름봉사단과 함께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찾아 도배 및 장판교체, 가옥 수리 등을 통해 편안하고 안전한 가정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15일에는 공사 최정호 사장이 직원들과 해당 가정을 방문하여 물품을 전



달하고, 자원봉사센터 및 익산 아우름

봉사단과 함께 가옥 수리를 직접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또한 아우름봉사단은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회비로 마련한 생필품과 먹거리를 전달하여 눈길을 끌었다.

최정호 사장은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을 전달하고자 한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와 지역 봉사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경진원 전북인사위, 인력양성사업 공동훈련센터 모집

전북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에서 운영중인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공동위원장 김중흥 경제부처, 이하 전북인사위)가 전북지역 내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수행할 공동훈련센터를 모집한다.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은 전북인사위에서 실시한 인력 및 훈련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 대상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 산업에 적합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기업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공동훈련센터 공모 기간은 22일까지이며, 공모 대상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으로부터 1년 이상 인준받은 기관으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직업훈련기관 사업주단체, 지역 대학(전문대학 포함), 공공기관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전북인사위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지역 특화 및 신기술·신산업 과정 등 500명 이상의 재직자 및 채용예정자 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전북도 내 30개 이상의 협약기업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전북지역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전북인력개발원, 폴리텍대학교 전북캠퍼스, 캠틡종합기술원이 공동훈련센터로 운영하고 있으며, 총 12억 원의 훈련비를 배정받아 34개의 훈련과정을 개설하고 약 3천명의 우수 훈련생을 배출하였다.

전북인사위 관계자는 "우수한 공동훈련센터 선정·운영을 통해 지역 산업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함으로써 전북의 산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며, "지역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 인재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